

완도 해변공원에서 '정원 페스티벌'... 즐길거리 다채

5월 한달 대표·작가·참여 정원 33개 한가득 선보여

전라남도는 생활 속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지난 3일 개막, 31일까지 33개 해변정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정원 페스티벌은 '선물같은 정원, 대한민국 대표 해변정원 완도 테라스란 주제로 열렸다. 어린이를 위해 4일 '뽀로로매직식어롱쇼' 공연이 2회 열리고, 6일까지 4일간 완도장보고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며, 15~19일엔 어르신 생활체육 대추전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표정원 1개소, 작가정원인 포토존 가든 2개소, 참여정원인 타이니하우스 30개소와 정원빌리지센터, 웰컴가든, 완도캐슬, 대형토피어리, 웨딩로드 등을 소재로 다채로운 정원으로 꾸며졌다.

전국에서 참가해 조성한 참여정원 30개 작품에 대해서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 상장과 함께 1천5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윤정희 씨의 '고희(古稀)의 봄', 최우수상은 백숙희 씨의 '행가현(행복이 있는 집과 뜰)'과 윤정화 씨의 '백운봉 운무길따라', 김성민 씨의 '완도 가든(wando garden)', 우수상은 심재경 씨의



전라남도는 생활 속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지난 3일 개막, 31일까지 33개 해변정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남도

'소통의 공간', 김현희 씨의 '완도 키친 가든', 임신자 씨의 '어부사시사', 김은선 씨의 '완도에서 보Go~ 슈Gp~', 홍민서 씨의 '완도해녀씨의 불턱(숯터)', 서지원 씨의 '바닷속 비밀정원'이 차지했다.

시민 참여정원은 5월 31일까지 전시 기간이 끝나면 지난해 최초로 개관해 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완도 해양치

유센터로 옮겨져 전시를 이어간다.

작가정원은 오래된 녹지공간을 리모델링해 페스티벌 방문객과 지역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새롭게 꾸몄다.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만 가든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이호우 정원작가와 삼성물산 조경사업부 박철준

소장을 초청해 조성했다.

가든모자와 플라워액자 만들기, 다육이 정원, 정원119 가든상담소, 식물 나눔 등 다양한 정원 체험프로그램과 완도캐슬, 대형토피어리, 웨딩로드는 포토존이 운영된다.

다육이 정원, 미니토피어리, 수퍼버블쇼, 카니발 매직쇼, 낚시체험 등 체험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조명을 조성해 남녀노소 방문객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4회째를 맞아 청정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준비했다"며 "선물같은 정원과 함께하는 정원페스티벌을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대규기자



화순민원초 배드민턴부 학생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전남 교육가족,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5.25.~28.)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5.14.~17.)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움직임이 전남교육 현장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고자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운영, 청소년문화축제, 학생생원단 1만여 명 모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일제간치 대회 홍보에 나선 도교육청은 체전 기간 학사일정을 사전 조정해 각급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발 빠른 소식을 전해줄 80명의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자단이 아나운서와 기자로 출연하는 유튜브 생방송 뉴스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또한 학생선수와 관객을 위한 청소년 문화축제를 25일 오후 2시부터 목포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14교 20팀 20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오케스트라·밴드·댄스 공연과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14일 열리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식에는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대회가와 애국가를 제창한다.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는 지난 4월에 전남 '의(義)교육과 연계한 4·8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실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경기장의 열띤 응원을 책임질 학생생원단 1만여 명을 모집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50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7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경기를 즐기며, 전남을 찾은 대표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 학생생원단을 위해 버스 임차료, 식비, 간식비 예산을 지원했다.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 승인도 마쳤다. 정식 경기장은 목포중앙고등학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2곳이며 시설 개·보수를 예산 지원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고홍석기자



김은주원장 전남대에 미술작품 노아의 방주 기증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지난 5월 1일 의과대학 출신인 김은주 원장(광산이비인후과의원)으로부터 작품 '노아의 방주'(작가 김25)를 기증받고, 환담했다.

이 작품은 추상과 재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동감 넘치는 붓 터치와 문학의 텍스트를 통해 불확실한 인간의 내면과 외부 현실을 다루고 있다. 현대 문명의 폐해와 인간의 오만과 과욕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자연의 시각으로 인간에 대한 용서를 염원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기증식에는 김은주 원장과 함께 그의 배우자이자 서양화가이며 기증작품의 작가인 김25화백과 정금희 박물관장, 주요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정성택 총장은 "애작이 가는 작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음에도, 이처럼 소중한 작품을 우리 대학에 선뜻 기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현익기자

전남도, 이-모빌리티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한다

영광군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전라남도는 9일 영광지식산업센터에서 전남 이(e)-모빌리티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업무협약은 전남 이-모빌리티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남 이-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수출 관련 국제인증 획득 및 규제 해소 지원 △해외 사업화에 필요한 홍보 및 수출 지원사업 지원 △해외 사업화 기술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베트남에서 '전남 모빌리티데이(DAY)'라는 이름으로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한다. 이 행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기업(HSC)과 업무협약, 베트남 응에안성 정부 관계자 면담,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모빌리티 신시장인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 부품 국산화하고 중국 저가 제품 대비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 생산 기반 구축 △동남아 수출 지원 △수출 관련 국제인증 획득 및 규제 해소 지원 △해외 사업화에 필요한 홍보 및 수출 지원사업 지원 △해외 사업화 기술개발 등을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또 올해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인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 국제인증 지원부터 운영서비스까지 지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전남 이-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이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재용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체계적 해외 수출 지원체제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대규기자

광양시, 푸르른 5월 '백운산자연휴양림' 추천

숙박동 등 갖춘 숲캉스 명소

광양시가 신록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 몸과 마음이 힐링 되는 웰니스 여행지로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추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 자리잡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에 식물생태숲,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감동채방 등 두루 갖춘 체험형 복합산림문화공간이다.

아울러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캐빈하우스, 종합 숙박동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춘 숲캉스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식물생태숲'은 다양한 수목과 사계절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는 20ha

규모의 산책로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산림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치유의 숲'은 풍욕, 탁족 등을 즐기는 외부 프로그램과 아로마테라피, 명상요가, 족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구성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다.

바쁜 현대인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나무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동백공방, 매화공방, 백운공방 등 수준별 목공체험장과 '나무 상상 놀이터' 등이 있다. /조부기기자

5~11월 의재·오방·석아 인물 조명 장소 특정형 연극 선봬

광주 동구는 무등산에 은거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소 특정형 연극 프로그램인 '시간의 숲, 무등'을 오는 11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의 숲, 무등'은 동구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전시나 책으로만 접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하는 새로운 인문 콘텐츠로 선보이고자 제작됐다.

동구는 관내 복합문화공간인 '10년후그라운드'와 협업하며 극단 '유피씨어터'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관객들은 무등산의 산길을 따라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석아 최원순, 오방 최홍중, 의재 허백련을 순차적으로 만나게 된다.

3명의 인물은 모두 무등산 초입에 자리

잡은 '춘설현'의 주인으로 석아 최원순은 펜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연륜인이었으며 오방 최홍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쳤다. 남종화가 의재 허백련은 '삼애상상(三愛思想·천지인)'을 바탕으로 무등산에 공동체를 일궈냈는데, 이들이 머물렀던 무등산 속 작은 집은 주인을 따라 명칭도 석아정에서 '오방정', '춘설현'으로 변경됐다.

특히 전시나 책으로만 접하던 3명의 인물의 삶의 조명하는 뮤지컬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며, 이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6곡의 창작곡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며, 광주 동구 아트패스 누리집(www.artpass.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간의 숲, 무등'

인문도시정쟁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 동구청장은 "나눔을 실천하며 무등산에 머물렀던 오방·석아·의재 선생의 발자취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는 3명의 인물들의 이야기 '시간의 숲, 무등'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익기자

지하철역에서 무료 안과 검진

광주교통공사와 신세계 안과는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사 진료를 펼쳤다.

이날 진료에는 신세계안과의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로우대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백내장 및 안질환 검사 등 다양한 진료를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고홍석기자

